

權試撰『詩人要考集』의 일본 전래와 간행의 의미

구지현*

차례

1. 서론
2. 『詩人要考集』의 일본 전래와 출판의 배경
3. 『詩人要考集』의 구성과 일본 간행의 의미
4. 결론

1. 서론

조선과 일본은 쇄국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나 12차례의 통신사 사행을 통해 다방면으로 교류가 이루어졌다. 사행 당시 조선인이 남긴 유묵과 서화 등은 여러 차례 화보집으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 출간된 『大系朝鮮通信使』¹⁾는 이러한 작업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통신사기념문화사업회에서 새로운 유물을 소개하는 도록을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는 중이다.²⁾ 현재까지도 현판이나 그림, 글씨가 상당한 양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새로운 유물이 소개되고 있다. 조선의 문

*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 방문연구원

1) 辛基秀·仲尾宏, 『大系朝鮮通信使』 1~8, 明石書店, 1993~1996.

2) 『새이켄지소장 조선통신사 유물도록』, 『조선시대 통신사 행렬 도록』, 『쇼코쿠지 지쇼인소장 조선통신사유물도록』 등이 있다.

인과 서화인의 활발한 활동을 짐작하게 한다.

사행단 문사들의 친필 외에도 일본 문사들과 나는 필담창화집이 상당 수 남아있어서 당시 양국의 문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엿볼 수 있다.³⁾ 필담창화집에는 장서가의 書目을 빌려 베끼거나 상대국의 서적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대화가 꽤 보인다. 1636년 하야시 라잔은 병서와⁴⁾ 매를 키우는 법을 실은 책에 대해⁵⁾ 질문하였다. 이미 이 시기 조선 서적이 일본에 전래되어 재간행되어 있었고, 통신사행을 통해 정보를 얻고 오류를 교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1719년 제술관으로 일본에 갔던 신유한에 따르면 “오사카 서적의 번성함은 실로 천하의 장관이다. 우리나라 제현의 문집 중 왜인이 높이고 숭상하는 것이 『퇴계집』 만한 것이 없다. 집집마다 외우고, 서생들 필담 문목은 반드시 퇴계집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뜻으로 삼았다. … 가장 통탄스러운 것은 김학봉의 『해사록』, 유서애의 『징비록』, 강수은의 『간양록』 등의 책은 두 나라의 은밀한 실정이 많이 실려 있는데도 지금 모두 오사카에서 간행되고 있는 것이다.”⁶⁾라고 하였다. 이렇게 조선 문인의 문집 뿐 아니라 국가에서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책까지 간행되어 널리 읽히고 있었다. 진재교는 유출된 조선의 서적이 “일본 입장에서는 출판문화와 상업적 출판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⁷⁾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조선인이 쓴 책이 일본에서 재간행되거

-
- 3) 이원식,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社, 2006 ;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대출판부, 1996.
- 4) “問 貴邦有陣法書 紫陽大君作序 紫陽大君 想是殿下之天倫也 敬聞其諱答 不知紫陽大君之爲人 安知其諱”(林羅山, 『林羅山文集 下』 60권, 「雜著 五」, 京都史籍會 영인본, p.710)
- 5) “又以養鷹方來問 卽我國星山李兆年所著 余曰吾以子爲異之間 曾鷹與犬之間耶”(김세렴, 『국역 해행총재』 IV, 『金東溟 海槎錄』, 민족문화추진회 편, p.14)
- 6) “大坂書籍之盛 實爲天下壯觀 我國諸賢文集中 倭人之所尊尙者 無如退溪集 卽家誦而戶誦之 諸生輩筆談問目 必以退溪集中語爲第一義 … 最可痛者 金鶴峰海槎 柳西厓懲忿錄 姜睡隱看羊錄等書 多載兩國隱情 而今皆梓行于大坂”(김세렴, 『국역 해행총재』 I, 『海遊錄』, 민족문화추진회 편, p.75)
- 7) 진재교,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한국한문학연구』 41,

나 다시 제작되는 일은 당시 일본 출판계에서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적 유통 상황에서 『詩人要考集』⁸⁾은 독특한 경우라 할 수 있다. “朝鮮學士菊軒撰”이라고 속표지에 밝히고 있는 이 책은 1695년 일본에서 간행되었다. 국헌은 권척(權試, 1599~1667)의 호이다. 그가 1636년 이 문학관으로 통신사를 배행했을 때 지참해 갔던 『시인요고집』이 간행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간본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편찬된 원고가 일본 문사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통신사 사행 때마다 일본 문사와의 교류를 통해 조선은 일본의 한문학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일본 문사의 학문적 질의에 대답을 해주고 시문집에 서문을 써주는 모습 등은 사행록이나 필담창화집에서 종종 발견된다. 이시카와 조잔(石川丈山, 1583~1672),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 가메이 난메이(龜井南冥, 1743~1814) 등 일본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인들은 조선 문사의 서문을 받은 것을 계기로 성가를 올렸다. 이렇듯 유학 혹은 한학의 분야에서 조선쪽이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적 전수의 구체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권척의 『詩人要考集』은 조선의 시적 감식안이 일본에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보인다.

이 책에 관한 소개나 연구는 한국이나 일본 양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撰者인 국헌, 즉 권척은 『강로전』의 작가로 알려짐으로써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나 문집이나 사행록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사행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한편 일본 한문학사에서 이시카와 조잔과의 필담 때문에 간혹 언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권척의 생애나 배경까지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 한일 문사 교류를 다루더라도 주된 대상은 필담창화집이기 때문에 『詩人要考集』이 아직까지 연구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2008, pp.74~114.

8)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도쿄도립중앙도서관에 동종의 간본이 소장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詩人要考集』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 전래와 간행 과정을 고찰하고 직접적인 영향 관계의 한 예로 삼아 양국 교류사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詩人要考集』의 일본 전래와 출판의 배경

1636년 제4차 사행은 쓰시마의 국서위조가 폭로된 柳川一件이 계기가 되어 파견되기는 하였으나, “回答兼刷還使” 대신 通信使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조선국왕-일본 대군’ 외교체제가 새로이 정립되었다. 이 시기 마상재가 처음 파견되었는데, 이는 정치외교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양국 문화교류의 시작을 의미한다. 문학 면에서도 양국 문인들 사이에 본격적인 필담창화가 시작되었고 독자적인 필담창화집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양국 교류의 초기 권척의 『詩人要考集』이 일본으로 전래되는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이문학관 權試의 일본에서의 역할

4차 통신사 사행원의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吏文學官의 등장이다. 장순순은 양국 외교 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선정부가 “외교문서 작성 등 외교실무에 뛰어나고 외교업무에 밝은 사람의 파견을 고려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문학관은 외교실무에 밝은 사람이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⁹⁾ 이러한 외교관계의 필요성에 권척이 적당한 인재였기 때문에 이문학관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권척은 어린 나이에 문재를 드러낸 듯하다. 8세 때 숙부 권필(權鐸, 1569~1612)의 초청으로 집에 왔던 명나라 사신 朱芝蕃(1570~1628)에게

9) 장순순, 「朝鮮後期 通信使의 製述官에 대한 一考察」, 『전북사학』 13, 1990, pp.33~75.

칭찬을 받았다는 일화와 장인 이항복(李恒福, 1556~1618)에게 13세 때 ‘三色桃’의 시를 지어 올린 이야기가 전한다. 20세 때는 강홍립(姜弘立, 1560~1627)을 따라 명나라 원군으로 출병하여 深河전투에 참여하였다. 강홍립이 후금에 투항한 후 그는 혼자 탈출하여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다. 훗날 이 때의 경험을 기록한 『강로전』을 지었는데, 성대중(成大中, 1732~1812)은 이 『강로전』을 일본에서의 포로 생활을 적은 강항(姜沆, 1567~1618)의 『看羊錄』에 비견하기도 하였다. 권척이 이문서관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통신사행 이전부터였다. 1633년 세자책봉을 위한 주청사를 따라 중국에 갈 때 이미 이문서관의 직임으로 동행했다. 그리고 1636년 정사로 임명된 임광(任統, 1579~1644)의 추천에 의해 이문서관으로서 통신사의 일본사행에 참여하여 문사를 담당하게 되었다.¹⁰⁾

1636년 통신사행에는 이문서관 외에도 정사 서기 문홍적(文弘績), 부사 서기 문필(文弼)이 함께 파견되었다. 이들은 사신들의 명에 따라 여러 가지 문사에 관련된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기들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에도에 머물던 12월 13일 하야시 라잔은 김세렴을 찾아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이날 일기 말미에 김세렴은 라잔이 “내 호, 나이, 관직, 등과한 날짜, 거주지, 본관을 듣고 싶어 하여 권척에게 대답하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¹¹⁾ 이날 같은 주제로 라잔이 문홍적과 나누는 필담이 라잔의 문집에 실려 있는 정도이다.

권척의 행적이 두드러진 까닭은 다른 서기들과는 달리 특수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임진일 뜰에 이르러 향을 사르고 절을 하였는데 매우 엄숙했다. 일이 끝나자 대승정 텐카이(天海, 1536~1643)가 나와 알현하였다. 서로 읊하고 떠났다. 잠시 櫻本坊에서 쉬면서 음식을 먹었다. 산증을 읊은 율시 약간 편을 썼다.

10) 권척의 생애에 대해서는 신해진의 연구를 참조. 신해진, 『권척과 한문소설』, 보고사, 2008, pp.17~52.

11) “仍願聞余軒號年歲官職登科日月居住本貫 令權仗答之”(『국역 해행총제』 IV, 『金東溟 海槎錄』, 민족문화추진회 편, p.14)

다. 그 무리에 시학교관 국헌 권칙이 있었는데 역시 따라와서 세 사신을 대신해 시를 지었다.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¹²⁾

위는 하야시 라잔이 『和朝鮮三使日光山中詩』의 서문 일부이다. 임진일은 통신사행이 日光山에 도착한 1636년 12월 22일을 가리킨다. 이날 사신 일행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인 東照宮을 구경하고 산을 내려와 잠시 쉬었다. 김세렴의 『海槎錄』과 대조해 보면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날 사신단에서 시를 지은 사실은 일치한다. 김세렴은 8수를 지어 보냈다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고 라잔이 나중에 김세렴의 시에 화운한 것 역시 8수이다. 어찌되었든 김세렴이 日光山의 풍경을 읊은 율시 8수를 일본 쪽에 보낸 것만은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東溟集』의 『槎上錄』에는 日光山에서 지은 시가 『靈杉』 1수뿐이다. 이 시가 라잔의 화운시 제 7수와 운자가 일치하는 점과 김세렴이 『江戶雜詠』처럼 도주의 청에 따라 써준 시까지 다 『사상록』에 실려 있는 점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실제 그가 지은 시가 이 1수뿐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라잔이 代作이라고 말한 대로 김세렴의 시 8수 중 7수는 권칙이 지었던 것이다.

사행 도중 시작 활동은 권칙만의 고유영역이었던 듯하다. 김세렴의 사행 도중 시편을 보면, 자신의 서기와 주고받은 시가 전혀 없는데도 권칙의 시에 화운한 것은 여러 편 보인다. 또 권칙 자신도 『槎上錄』의 제문에 간간히 김세렴과 창화했다고 밝히고 있다.¹³⁾ 자잘한 문사에 관한 업무 중 특히 시작에 관련된 일은 자연스럽게 시재를 지닌 권칙이 맡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인들도 권칙의 호칭을 시학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이다. 위 인용문에서 보이듯 라잔은 이문서관인 권칙을 “시학교관”이라고

12) “壬辰入山到庭 燒香禮拜甚肅 事畢 大僧正天海出謁見 相揖而去 暫憩櫻本坊 以飲食焉 題詠山中者 律詩若干篇 其屬有詩學教官菊軒權試亦從之 代三使作詩 蓋在其中歟”(林羅山, 『羅山先生詩集』 47권, 『外國贈答上』, 京都史籍會 영인본, p.93)

13) 『東溟集』 4권, 『敬題槎上錄後』

칭하였다. 1637년 1월 18일 귀로 중 교토에서 만난 이시카와 조잔(石川丈山, 1583~1672)도 필담에 권칙을 “詩學教授”라고 하였다. 사행 도중 권칙을 만났던 일본 문사들이 그를 시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권진사가 물었다.

“귀국에서 숭상하여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숭상하여 읊는 것은 어떤 시입니까?”

세이켄이 대답하였다.

“사서육경과 제자와 역사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사 및 諸儒의 시문집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시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운을 이으시겠습니까?”

“선창하시면 반드시 화운시가 있을 것입니다.”

“재주가 서툴러 드리기에 부족합니다. 공께서는 한 번 웃으려고 달라고 하십니까?”

“공의 젊은 나이와 뛰어난 재주에 어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세이켄이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지어 진사에게 바쳤다. … 진사가 또 말하였다.

“공의 시는 글자마다 모두 옥 같으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¹⁴⁾

위는 11월 교토에서 만난 22세의 젊은 의원 노마 세이켄(野間靜軒, 1608~1676)과의 필담 일부이다. 세이켄은 1655년 종사관 남용익의 기록에 보이는 “埜門三竹”으로, 御殿醫이면서도 문명이 높았던 인물이다.¹⁵⁾

4차, 5차, 6차 사행 때는 즉석에서 필담이 가능했던 일본인이 매우 소수

- 14) “權進士問曰 貴國之所尚讀者何也 所尚誦者何詩 靜答曰 讀四書六經及子史 且吾邦有國史及諸儒詩文集等 權曰 貴詩欲一見之 靜曰 嗣韻乎 權曰 有唱必有和矣 靜曰 才拙不足呈之 公欲發一笑爲之乞之乎 權曰 公之妙年英才 寧有是理 靜卒賦一絕呈進士 … 進士又曰 公之詩字字皆玉 勿疑勿疑”(『野間三竹詩文稿』,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 15) “埜門三竹 卽其國名醫玄琢之子也 世傳其業 爲人巖率顯狂 而稍有氣習 且其國之律醫官 無異文士 以此父子 皆顯名於時”(남용익, 『聞見別錄』, 『국역 해행총제』 VI, 민족문화추진회 편)

었다. 하야시 라잔의 문집에 수록된 필담을 보더라도 그의 의문에 조선 문사가 대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뿐 창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는 조선인의 증여시가 주류를 이루었고, 위 日光山의 예에 보이듯 특별한 경우 요청에 따라 화운시가 지어졌다. 필담 도중 즉석에서 창화시를 주고받는 방식은 1682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유독 1636년 필담창화집에서 위와 같은 즉석 창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세이켄은 본래 중국 서적에 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권칙을 만났다.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되자 권칙은 먼저 세이켄에게 시를 짓기를 청하였다. 세이켄 쪽에서 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사양하는데도 권칙은 다시 한 번 청하였다. 위 대화에서 보이듯 화운시를 지어주겠냐는 세이켄의 요구에도 선선히 응한다.

같은 시기 권칙을 만났던 이시카와 조잔은 『朝鮮筆談集』 발문에 “지난 번 통신사가 에도에 도착했을 적에 하야시 라잔이 글로 삼한의 풍속과 육경의 어려운 곳을 물으니 그들이 국법 때문에 감히 답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⁶⁾고 기록하고 있다. 통신사의 입장에서 조선의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나 사상적 문제로 변질 수 있는 경전 해석의 논쟁은 금기시 되는 면이 있었다. 그런데 권칙은 이런 상황에서 무해한 ‘한시’를 소통의 도구로 제시하였다. 즉석에서 시를 주고받고 시평을 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필담창화라는 새로운 소통방식이 권칙에 의해 실행되었던 것이다. 5차, 6차에도 보이지 않는 필담창화집이 4차 사행 때 나타난 것은 권칙이라는 문사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詩人要考集」의 전래와 간행 배경

현재에도 여러 경로를 거쳐 일본에 유입된 조선본이 상당히 남아있을 뿐 아니라 조선본을 復刻 혹은 和刻한 경우도 많다. 특히 경서는 에도시

16) “曩之信使，到東都時，羅浮氏以書詰問三韓之風俗六經之難處，彼以國法不敢答焉” (石川丈山, 『新編覆醫集』, 『筆談跋』, 靑裳堂書店 영인본, p.812)

대 관학 성립과 융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¹⁷⁾ 비록 조선이 공식적으로 서적을 유출시키지는 않았지만 왜관 등을 통해 일본으로 서적이 흘러들어갔고, 통신사 사행도 양국의 서적을 교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1636년 필담을 살펴보다라도 조선의 서적은 주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朝鮮人筆語』를 보면 와다 세이칸카(和田靜觀窩, 1607~?)가 능서관(能書官) 전영(全榮)에게 조선에서 간행된 『文章辨體』와 『天命圖說』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필담이 보인다. 노마 세이켄은 『七書講義』, 『性理字義』를 거론한다. 이 책들은 모두 중국 서적이었지만 일본 문인들은 조선 문사를 통해 의문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詩人要考集』 서문의 전문이다.

고시 삼백 편 같은 경우는 그 말이 간략하면서도 깊어 후세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한·위·육조 사이에 비록 잘 울리는 자가 있었으나 화려함과 질박함이 그 중도를 얻은 경우가 드물다. 당에 이르러 두보와 이백의 무리가 나와서 체제를 바르게 하여 한 글자 한 구라도 모두 법으로 삼기에 충분하였으니 본디 시가의 동량이다. 이에 조선인 국헌이 우묵재의 『聯珠詩格』 가운데 걸출한 자 50인을 택하여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시를 신고는 『詩人要考』라고 제목을 붙였다. 때때로 읊으면서 그 풍격을 가장 좋아하였다. 처사 아무개가 그 책을 구하여 소중하게 보관한 것은 당연하다. 요즘 서림에서 누차 간행하기를 청하여 역시 감히 숨기지 못하고 마침내 꺼내 주었다. 그리고 배움에 힘쓰게 하고자 讀記를 붙이고 시법을 더하여 아울러 간행에 부치면서 내게 서문을 쓰도록 하였다. 내가 비록 시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를 익숙하게 읽으면 형식과 내용이 상응하고 의경이 함께 이르러 순후하고 순후한 것이라 말하지 않겠는가? 배우는 자는 각자 한 질씩 옆에 두고 그 격률을 따라 힘써 배우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이백과 두보의 현묘함 역시 어찌 다른 것에서 살피기를 기다리랴? 시가의 요로를 얻은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겐로쿠 을해(1695) 7월 1일 와우산인 씀.¹⁸⁾

17) 후지모토 유키오, 「일본의 현존 조선본에 대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5권 1호, 1983, pp.111~115.

18) “如古詩三百篇 其言簡奧 而非後世之所能及也 韓魏六朝之間 雖有善鳴者 華實質文

위 서문을 통해 『詩人要考集』이 전달된 경위를 대강 파악할 수 있다. 사행원들이 먼 여정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서적을 지참하는 일은 흔했다. 전영이 세이칸카에게 사마천의 『史記』 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이 필담에 보이는데, 『史記』처럼 흔히 읽는 책도 가져왔던 것이다. 권칙의 『詩人要考』도 “時時吟詠”이라는 구절에서 보이듯 원래는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으나 필담을 나누는 중 일본인의 손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詩人要考集』을 권칙에게 받아 간행에까지 이끈 蝸寓散人は 누구일까? 권칙과 만나 필담을 남긴 일본 문사는 하야시 라잔, 와다 세이칸카, 노마 세이켄, 이시카와 조잔 등 네 명이다. 서문이 1695년 쓰였고 간행이 교토에서 이루어졌으니, 와우산인은 적어도 1695년까지 생존해 있던 교토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교토에서 만났던 인물은 세이칸카와 조잔 뿐인데 둘 다 1670년대 사망했다. 따라서 이들 중 와우산인으로 추정할 만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와우산인이 京學派의 젊은 문인이었으리라는 점이다. 당시 필담창화를 나눌 정도의 학식을 갖춘 문인은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 1561~1619)의 제자 및 교유인물에 국한되어있었으며, 와우산인은 4차 사행 이후에 적어도 60년간 더 생존한 데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處士’, ‘散人’ 등 에도시대 문인취미를 반영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636년 11월 혹은 1월에 이시카와 조잔, 노마 세이칸과 비슷한 시기 권칙을 만났던 것만은 분명하다.

조잔이나 라잔이 권칙을 시학교수, 시학교관이라고 칭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권칙의 시평은 이들 일본문인에게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시카와 조잔의 예만 보더라도 권칙이 ‘日東之李杜’로 평한 이래

得其中者蓋鮮矣 至唐杜甫李白之徒出 而方正其體制 隻字片句 皆足以爲法 固詩家之梁棟也 粵有朝鮮人菊軒 於于默齋聯珠詩格中 擇其傑出者五十人 圖其像揭其詩 題曰 詩人要考 時時吟咏 最喜其風格焉 處士某需斯書 珍藏之也當矣 問書林屢請刻于梓 亦不敢秘 遂出與之 且欲使勉學 加以讀記 益以詩法 并付之劊劊 使予爲之序 予雖不解詩 而熟讀此詩 則不謂華實相應 意境共到 醇乎醇者歟 學者各自 置一軼於側 從其格律 勉學不已 李杜之玄妙 亦何待考他乎 可謂得詩家之要路者也 元祿乙亥初秋朔 蝸寓散人拜書”(『詩人要考集』 서문, 동경도립도서관 소장)

그에 관련된 문장에 반드시 인용되면서 일본의 당풍을 연 인물로 거론되곤 하였다.¹⁹⁾ 그런 권척이 휴대했던 『詩人要考』가 시를 연마하던 일본 문인의 눈에 띄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와우산인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詩人要考集』은 1695년 교토에서 출간되었다. 이는 일본의 출판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의 출판은 출판자에 따라 勅版, 官版, 寺院版, 私版, 書肆版으로 나뉜다. 천황이 거주하고 五山이 있었던 교토는 언제나 일본 출판의 선두에 있었다. 임진왜란을 통해 서적 및 인쇄도구가 약탈되고 인쇄공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조선의 인쇄기술이 일본에 전해졌고 고활자판 인쇄가 보급되었다. 이 고활자판 인쇄는 막부에서 찍어냈던 유교경전의 관판에 활용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민간인이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고활자본의 출판규모는 1백부의 적은 수였기 때문에 독자가 막부관계자와 주변 인물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²⁰⁾ 권척이 이들을 만났던 시기는 고활자본에서 상업판매용으로 제작된 整版本으로 바뀌어가던 시기였으므로 아직 상업적인 출판이 활발해지기 전이었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일본의 출판업은 급격히 성장하였다. 정판본에 힘입어 대량출판이 행해졌는데, 목록에 따르면 1692년 교토에서 7300점에 이르는 출판이 이루어졌다.²¹⁾ 이런 상업출판은 판을 짜느라 높은 초기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판매이익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독자를 끌 수 있는 흥미뿐 아니라 오랜 기간 팔릴 수 있는 지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와우산인의 서문 내용에는 이 시기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書林 즉,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 쓰인 서문에 독자는 시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으로 상정되어 있다. 그들에게 “각자 한 질씩 옆에 두고 그 격률을 따라 힘써 배우기”를 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백과 두보의 현묘함”이라는 이 책의 효과를 말한다. 또 쉽게 다가가기 위해 시마다 일본어 번역에 해당하

19) 小川武彦·石島勇 공저, 『石川先生年譜』本篇, 靑裳堂書店, 1994, p.10.

20) 長友千代治, 『江戸時代の図書流通』, 思文閣出版, 2002, p.14.

21) 宗政五十緒, 『近世京都出版文化の研究』, 同朋舎, 1982, p.32.

는 “讀記”를 붙이고 권척과 상관없이 초보자에게 필요한 “시법”을 별도로 한 권 붙였다. 와우산인의 의도도 상당히 개입되었으나 표지에는 “朝鮮學士菊軒撰”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통신사행을 통해 전해진 권척의 『詩人要考集』은 60년 뒤 대량 출판이 행해졌다. 그가 來日했던 1636년 당시에는 한시를 매개로 필담을 나눌만한 문사 계층이 일본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데 비해 1695년에는 한시를 배우는 일이 대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 “조선학사”가 撰했다는 사실은 대중들에게 매력적인 구매요인이 되었다. 권척의 감식안에 따라 선정된 한시가 60년 뒤에 일본 학시의 전범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3. 『詩人要考集』의 구성과 일본 간행의 의미

『詩人要考集』의 서지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면, 목판본이고 크기는 22.4×16.4cm이며,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책으로 엮여 있으나, 도쿄도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4책으로 분권되어 있다. 간기는 “元祿八乙亥年八月吉日 洛陽書林堂版行”이다. 표제지에는 “書肆堂藏版”이라고 밝히고 있어 간기와 차이를 보인다. 書林堂과 書肆堂은 모두 교토에 있던 本屋²²⁾이다. 일본 겐로쿠(1688~1704) 즈음에 교토에 72개의 本屋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그 중 하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내용 구성을 보면, 제1권부터 제3권까지 春部 10인, 夏部 5인, 秋部 10인, 冬部 5인, 雜部 20인 총 50인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시인의 시가 실려 있으며, 제4권은 64개의 시칙이 실려 있다. 서문에 따르면 본래 권척이 찬한 『詩人要考集』은 『聯珠詩格』에서 뽑은 시 50수와 권척이 직접 그린 초상이 실린 제 3권까지이고, 와우산인에 의해 각 시에 읽는 법과 제4권의 시칙이 덧붙였다고 한다.

22) 井上隆明 著, 『改訂増補近世書林板元總覽』, 青裳堂書店, 1998, p.854

『詩人要考集』이 서문에 언급된 『聯珠詩格』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일본 문사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聯珠詩格』에 대한 『詩人要考集』의 특징

『聯珠詩格』의 정확한 명칭은 『精選唐宋千家聯珠詩格』이다. 이 책을 편찬한 사람이나 정확한 편찬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고 다만 서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于濟라는 인물이 시를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 3권으로 엮은 시선집을 채정손에게 보내 질정하자, 채정손이 다시 증보하여 20권으로 만들고 『唐宋千家聯珠詩格』이라는 이름을 붙여 간행하게 하였다고 한다. 채정손이 서문을 쓴 때가 大德 4年, 즉 1300년이다. 『聯珠詩格』이 이즈음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명칭 시대 서목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²³⁾ 일실된 지 오래된 듯하다. 그런데 오히려 조선과 일본에 전해져 널리 애독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선본으로 일컬어지는 北京大學 소장본은 조선에서 간행된 서거정의 증주본이다.²⁴⁾ 또한 일본에 원래 單注本이 있긴 하였으나 서거정의 증주본이 임진왜란 때 흘러들어간 이후 이것이 간본 『聯珠詩格』의 저본이 되었다. 일본인에 의한 새로운 교주본도 이 조선본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아서 성립된 것이다.²⁵⁾

김상일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聯珠詩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성종 때부터이다.²⁶⁾ 『연주시격』이 유포되기 시작한 것은 1485년이었고 1492년 성종의 명에 의해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주해본을 바탕으로 한 국가적인 간행이 이루어졌다. 성종 당시 시문부흥 정책의 일환으로,

23) 張健, 「蔡正孫考論-以『唐宋千家聯珠詩格』爲中心」,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學版)』 Vol 41, No.2, 2004, pp.60~70.

24) 卞東波, 「稀見漢籍『唐宋千家聯珠詩格』의 文獻價值及其疏誤」,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Vol 23, No. 6, 2008, pp.111~119.

25) 住友朋彦 「旧刊『聯珠詩格』版本考」, 『斯道文庫論集』 43집, 2009, pp.215~263

26) 김상일, 「『精選唐宋千家聯珠詩格』과 조선조 간행의 의미」, 『東岳語文論集』 36집, 2000, pp.395~414.

율시의 전범으로 『瀛奎律髓』가, 절구의 전범으로는 이 『聯珠詩格』이 간행되었던 것이다. 『연주시격』은 學詩書로서 널리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아동은 먼저 『자류』를 배우고 그 다음 『연주시격』을 배우고 그 다음 소미의 『통감』을 읽어 그 문리를 발현시킨다. 그 다음 『정훈내편』을 읽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을 알게 한다. 그 다음 시경 서경의 대문을 읽어 후일 강경의 근본을 삼는다. 그다음 『소학』과 『속몽구』를 읽어 배우기 좋아하는 마음을 흥기시킨다. 이것이 바로 순서이다.²⁷⁾

(나) 김군이 또 직접 베껴 쓴 『唐宋聯珠詩格』을 꺼내 보이면 말했다. “제가 이제 늙어서 세상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어 이로써 여생을 마칠까 합니다만 동네 이웃들이 모두 저를 웃음거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시 한 수를 지어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²⁸⁾

(가)는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글을 배우는 순서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학습 과정에서 『연주시격』은 글자를 배우고 나서 처음 배우는 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격적인 수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문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나)는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 남해로 유배당했을 때 만났던 선비 金德恒과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화운시 서문의 일부이다. “竊有所好”라 한 것은 시 짓는 일을 가리킨다. 진주의 선비였던 그에게 시를 쓰는 교본이 되었던 것이 바로 『聯珠詩格』이다. 『연주시격』은 이렇듯 지방까지 널리 퍼져 있었고 아동용 뿐 아니라 나이든 선비에게도 시를 이해하는 교본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연주시격』은 각 격에 따라 칠언절구를 예시하는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여기에 설정된 격만 해도 324격에 이르지만 38격이 중복되어 291격

27) “凡兒童 先學字類 次學聯珠詩格 次讀少微通鑑 以發其文理 次讀庭訓內篇 以知先務 次讀詩書大文 以爲他日講經之本 次讀小學續蒙求 先生所著書名 以興起好學之心 乃其序也”(『眉巖先生集』 4권, 「庭訓」,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28) “君又出示其手寫唐宋聯珠詩格一卷曰 吾今年老 無所爲於世矣 於此竊有所好 欲以之終年 鄉隣皆以吾爲笑 故作一詩以自慰”(『藥泉集』 2권, 「次金生德恒示詩韻 并序」,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

이며 각 격은 칠언절구의 관습적으로 들어가는 어휘가 격으로 설정되거나 시상 전개 방식과 관련된 격이 부가된 것들이다.²⁹⁾ 또 두 개의 격에 같은 시가 속해있기도 하다. 이렇듯 『聯珠詩格』의 구성 자체가 시 감상보다는 시어를 연마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시서로서 조선과 일본에서 더 각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거정의 증주본은 고사까지 공부할 수 있었기에 더욱 유용하였다.

그런데 권칙이 원래 휴대하였던 『詩人要考集』은 『聯珠詩格』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완전히 다른 구성을 보인다. 와우산인이 서문에 밝혔듯 나중에 덧붙여진 제 4권의 시법과 각 시마다 붙어있는 讀記를 제외하면 권칙이 편찬한 『詩人要考集』은 제1권부터 3권에 50수와 각 시에 따른 시인의 초상이 전부이다. 제1권에 春部 10수와 夏部 5수가, 제2권에 秋部 10수와 冬部 5수가, 제3권에 雜部 20수가 나뉘어 실려 있다. 『聯珠詩格』을 출전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 2권처럼 8수가 뽑힌 경우가 있는 반면 아예 1수도 출전이 없는 권도 여럿 있으며, 같은 격에서 2수가 선정된 경우도 있어서 고르지 않은 분포를 보여준다. 목록도 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수가 되는 것이 초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詩人要考集』의 시가 비록 『聯珠詩格』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항목의 설정이나 책의 구성 등에서는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全唐詩』에 보이지 않는 일시가 실려 있기까지 한³⁰⁾ 『연주시격』의 규모에 비하면 선정된 양이 지나치게 적다고 할 수 있다.

『詩人要考集』이 『聯珠詩格』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 것은 어째서일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時時吟咏 最喜其風格焉”했다는 서문의 설명에도 보이듯 『詩人要考集』이 권칙 개인의 감상을 위해 만들어진 데 있다. 『詩人要考集』의 목록에는 시 제목이 아니라 시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 와우산인도 서문에서 권칙이 50명의 시인을 선택해 “그들의 초상을 그리고

29) 김상일, *ibid.*, p.401.

30) 卞東波, 「『全宋詩』失收詩人及其佚詩叢考—以稀見漢籍『唐宋千家聯珠詩格』爲中心」, 『古籍整理研究學刊』 5, 2006, pp.30~34.

그 시를 게재하였”다고 하였다. 먼저 시인의 초상을 그리고 나서 위의 여백에 시구의 글자들을 위에 재배치하는 순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적인 즐거움 뿐 아니라 시각적인 즐거움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점은 시구의 글자 배치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聯珠詩格』은 시구별로 설명이 붙어있고, 마지막에 서거정의 중주가 더 들어가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주해서의 양식이다. 그러나 『詩人要考集』의 시구는 칠언절구라는 형식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배열된 시를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가)	風 滿 啼 尚	(나)	無 梅 風 籬 殘 晚
人 夜 山 血 怨 魄	人 千 前 根 雪 別 醉		
時 不 正 明 染 誰 千 蜀	月 點 有 擁 村 扶		
寐 是 月 花 聲 年	一 溪 恨 數 筇		
愁 東 枝 々	痕 上 家 過		

(가)는 夏部에 실려 있는 羅鄴의 「聞子規」이고, (나)는 冬部에 실려 있는 譚知柔의 「雪後」이다. (가)의 글자배치가 시구의 구분 없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대칭이기는 하지만 가운데 '殘雪擁-籬根 風前有恨-梅'에 약간의 변형이 가해져 있다. 잡체시와 유사하여 언뜻 보면 끊어진 단위마다 의미가 통하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한문의 문어적 특성에 기대어 일부러 오독을 유도하는 듯하기도 하다. 『詩人要考集』은 이외에도 갖가지 배치 방식을 보여주지만 이는 칠언절구 형식과 의미단위의 분절과 상관없는 글자만의 재구성이다. 글자 자체가 의미를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만드는 조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혼독을 위해 덧붙인 일본의 가에리텐(返り点)과 오쿠리가나(送り仮名)가 오히려 글자 배치의 균형을 깨뜨린다.

시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권척의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었다. 권척은 사행 도중 만난 노마 세이켄에게 우리나라에서 읽는 것으로 “시는 적선과 소릉, 당나라 백가의 시가 있으나 아래로 소동파, 황정견에 이르면

역시 부끄러운 것이 있다”³¹⁾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선정된 50인에는 학시의 대상이 되었던 이백과 두보의 시는 찾아볼 수 없고 송나라의 시인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 다음은 생애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남송 말기의 시인 陳億子の 시 「西湖」인데, 雜部에 실려 있다.

望湖樓下水浮天	망호루 아래 물은 하늘에 떠있고
楊柳堆煙不礙船	버드나무에 안개 쌓였으나 배를 막지 않는구나.
橫笛一聲山水綠	횡적의 한 줄기 소리 들리는 산수는 푸르고
夕陽正在斷橋邊	석양이 바로 단교 주변에 있구나.

항주의 서호는 시인의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곳이기 때문에 『聯珠詩格』에도 서호를 읊은 시가 5수 가량 실려 있다. 여기에 孤山이나 蘇堤 등 주변 경물을 읊은 것까지 친다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 가운데 진억자의 시가 유독 뛰어나다고 평가할 만한 것은 없다. 3구 “橫笛一聲山水綠”이 청각을 시각으로 치환시킨 점을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서거정의 증주에 보이듯 이미 柳子厚가 썼던 시구에서 欸乃을 橫笛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특별히 기교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은 없는 것이다. 유자후 시에 보이는 ‘欸乃’, ‘採菱歌’와 같은 동적인 움직임이 제거된 채 단지 석양 무렵의 고즈넉한 서호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이다.

『詩人要考集』의 시들은 이처럼 별다른 기교 없이 사물을 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春·夏·秋·冬部の 시들은 각각의 절기를 대표하는 풍물이나 고사를 의경의 굴곡 없이 그대로 읊었다. 雜部 역시 다양한 제재의 시를 모아놓았으나 그 제재에 충실한 것들이다. 「村居」, 「山居」, 「幽居」 등 주로 정적이고 그윽한 맛을 드러내는 시들이 주류를 이룬다.

권杖의 『詩人要考集』은 애초 50인의 초상화로 이루어진 책에 시가 첨가된 개인적인 취미의 산물이었다. 초상이 주가 되어 계절을 테마로 자유롭

31) “詩則有若謫仙少陵唐百家詩 而下至蘇黃 則亦有恥之者”(『野間三竹詩文稿』, 일본국 회도서관 소장)

게 재구성하면서, 시의 선정은 『연주시격』에서 했을 뿐이다. 선정에도 개인적인 호오가 반영되어 기교는 없으나 계절별, 절기별 풍취를 잘 느낄 수 있는 시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聯珠詩格』이 본래 가지고 있던 학시라는 효용성은 여기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詩人要考集』은 초상의 게재와 글자의 재배치를 통해 회화적인 요소가 강한 감상용 시선집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일본에서는 오히려 인기를 끌만한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창 학시가 성행하고 출판업이 번성하던 17세기 말, 그림과 여백을 활용하면서 쉬운 시가 실린 『시인요고집』은 충분한 시장성이 있었고 조선학사의 편찬이라는 점은 여기에 권위를 더했다. 초상화가 들어가 있음을 알리는 “像入”이라는 두 글자가 표지에 장식되었고 권칙의 이름 대신 “朝鮮學士菊軒撰”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聯珠詩格』과 이질적인 성격임에도 와우산인에 의해 서거정 증주본의 증주가 번역되어 붙으면서 간단한 학시서로서 간행되게 되었던 것이다.

3.2 『詩人要考集』 일본 간행의 의미

『詩人要考集』의 저본이 된 『聯珠詩格』은 17세기 학시의 붐을 타고 일본에서도 널리 유행하였다. 한시를 배우려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읽을 법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추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학시서로 출간된 『詩人要考集』만 가지고 일본 내 영향을 따져 말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聯珠詩格』을 작품세계에 수용한 것으로 평가받는 요사 부손(与謝蕪村, 1716~1784)의 예를 통해 영향 관계를 추적해 보려 한다. 요사 부손은 마츠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 고바야시 잇사(小林一茶, 1763~1828)과 함께 나란히 일컬어지는 하이쿠 시인으로 일본 하이쿠 중흥의 아버지로 불린다. 화가로도 유명하여 일본 俳畫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그의 하이쿠는 한 시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王岩은 요사 부손의 詩畫에 「聯珠詩格」이 상당부분 수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³²⁾ 특히 그림에서는 시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보인다. 1772년 부손은 「四季山水圖」³³⁾를 그렸는데 春夏秋冬의 각 그림에는 한시가 제시로 붙어 있다. 이중 춘경의 「防船」·「西湖」·「思歸」, 夏景의 「游衡岳」·「靈隱冷泉亭」·「山中偶成」, 秋景의 「聞蛙」·「南園」의 제시 8수³⁴⁾가 「聯珠詩格」에서 나왔다. 이듬해 1773년에 그린 또 다른 「四季山水圖」³⁵⁾에도 총 9수의 한시가 제시로 씌어있다. 계절별로 실린 시인 「邸壁」·「杏花」, 「春江漁夫」·「漁郎」·「傷春」, 「隱者」·「放猿」, 「一逕」·「尋仙」이 모두 「聯珠詩格」에서 선택되었다. 이 외에도 「秋景山水圖」, 「人家山水圖」 등 여러 그림에서 「聯珠詩格」 소재의 찬시를 찾아볼 수 있다. 王岩의 연구에 따르면, 출전이 다른 시가 제화시로 쓰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聯珠詩格」에서 선택된 시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의 회화 대성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畫贊을 주로 「연주시격」에서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기에 선택된 한시들과 계절 감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相忘來此又忘歸
竹瘦苔深一逕微
不覺樹梢藏宿雨
輕風吹落濕人衣

잊은 채 이곳에 왔다가 또 돌아가길 잊었으니
대나무 아위고 이끼 깊은 곳에 한 줄기 길 희미하네
나무 끝에 묵은 비 품고 있는 줄 몰랐는데
가벼운 바람이 불자 떨어져 옷을 적시는구나.

위 시는 겨울 풍경의 題詩 「一逕」이다. 본래 그림은 깊은 산속으로 난 길을 걷는 사람이 그려져 있어, 시가 묘사한 풍경과 상통한다. 함께 실린 「尋仙」 역시 비슷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그러나 이끼가 낀 길이나 가벼운

32) 王岩, 「与謝蕪村の日中比較文學的研究」, 和泉書院, 2006, pp.67~113.

33) 尾形尙・佐々木丞平・岡田彰子 편, 「蕪村全集」 6권, 講談社, 1998, pp.177~179.

34) 王岩은 내용을 보아 「游衡岳」·「靈隱冷泉亭」·「山中偶成」을 추경으로, 「聞蛙」·「南園」을 하경으로 분류하였다.

35) 尾形尙・佐々木丞平・岡田彰子 편, *ibid*, pp.184~185.

바람에 비가 쏟아지는 모습은 겨울의 풍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여름 산속의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런 현상은 다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春江漁夫」와 「傷春」은 제목부터 봄을 노래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지만 여름 풍경의 제시로 사용되었다. 그림을 개별적으로 떼어 본다면 제화시가 그 자체의 분위기는 잘 드러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계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각 그림의 계절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다.

부손의 경우 그림의 분류와 시의 선정이 매우 무리하게 연결된 느낌이 든다. 그림과 시의 내용은 특별히 계절감을 드러낼 필요 없이 전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에 따랐으면서, 계절이라는 네 가지 틀과 「聯珠詩格」에서의 한시 선택이라는 도식에 맞춘 것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聯珠詩格」을 다루는 발상이다. 「蕪村全集」 6권에 실려 있는 繪畵는 총 577점에 달하지만 한시가 달린 작품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중 사계절로 구성된 그림에 제시된 한시는 대부분 「聯珠詩格」을 출전으로 하고 있다. 사계절 분류와 「연주시격」을 연결시킨 점과 학시서로서 「연주시격」을 다루지 않고 개인적인 감상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 「詩人要考集」을 편찬한 권척의 태도와 일치한다. 더욱이 17수 시 가운데 4수가 「詩人要考集」과 일치하는데, 20권에 300여격이 설정된 「聯珠詩格」의 분량과 다양한 주제를 감안하면 공교롭다고 할 수 있다.

「詩人要考集」이 「聯珠詩格」과 달리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점은 와우산인에 의해 시마다 讀記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가) 一二ノ句 ㉠望湖樓ノ下水天ニ浮ンテ天ト通シテ有ヤウナリ ㉡楊柳ニ煙リウツダカフシテ船ヲサヘヌソ ①此句東坡カ詩ノ全句ニ本ヅクソ ②望湖樓ハ一ニハ看經樓ト名ヅク錢塘ノ一里ニアリ

三四ノ句 ㉢イツクトモナク笛カーコヘキコヘ水山モミトリナリ ③西湖ノ景ヲ寫シテ凡ナラス ㉣夕陽ハ夕日ナリ日カタムキテ斷橋ノ邊ニ在タツ ④堆ノ字礙ノ字下シエテ老タリ ⑤柳子厚カ詩ニ欸乃一聲山水綠 ⑥西湖ニ橋アリ斷橋ト名ヅク

- (나) ㉠ '望湖樓下水浮天' ㉡ '此句本東坡詩全句 增註 ㉢ '望湖樓一名看經樓在錢塘一里 ㉣ '楊柳堆煙不礙船 ㉤ '堆字礙字下得老 ㉥ '橫笛一聲山水綠 ㉦ '寫西湖景致不凡 增註 ㉧ '柳子厚詩欵乃一聲山水綠 ㉨ '夕陽正在斷橋邊 ㉩ '西湖有橋名斷橋

(가)는 앞서 예로 든 陳億子の 시 「西湖」 뒤에 붙은 讀記이고, (나)는 일본에서 간행된 서거정의 증주본이다. 비교해 보면 『詩人要考集』에는 본註와 增註의 구분이 없고 순서가 약간씩 달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 ㉩까지는 『聯珠詩格』의 주석인 ㉠'에서 ㉩'을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한 것으로, 서거정 증주본이 원전임이 확실하다. 그런데 본래 시구절까지 일본어 번역이 이루어졌다. 1구와 2구, 3구와 4구를 각각 묶어 놓긴 하였으나 ㉠㉡㉢㉣은 ㉠' ㉡' ㉢' ㉣'를 일본어로 옮긴 것이다.

일본 에도시대의 한문 혼독이라는 것은 헤이안시대의 언어에 기반을 둔 문어로 직역하는 것이었으므로, 혼독하는 순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일본어역이었다. 당시 사용하는 속어와는 거리가 있었으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일본의 古文辭派를 열었던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는 한문 혼독으로 인한 의미의 모호함에서 벗어나고자 중국식으로 음독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이후 한시문을 속어로 번역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소라이 이전에도 한시문의 일본어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1715년에 간행된 『和訓三體詩』이다. 『聯珠詩格』보다 앞서 출현한 시선집으로,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널리 읽히며 일본문학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반면 『聯珠詩格』의 번역은 후대인 1801년에서야 이루어졌다. 가시와기 조테이(柏木如亭, 1763~1819)가 『聯珠詩格』 1권부터 4권에 실린 시 가운데 128수를 뽑아 번역을 한 『譯注聯珠詩格』이 에도에서 출간되었다. 이렇게 따져보면 권척의 『詩人要考集』은 1백여년 먼저 『詩人要考集』의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고, 『三體詩』보다 20년 앞선 셈이다.

다시 부손의 작품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聯珠詩格』 외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는 시집이 바로 『三體詩』이다.³⁶⁾ 한시를 짓기도 했던

하이쿠 시인인 부손 역시 당연히 『和訓三体詩』를 접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자면 『聯珠詩格』의 번역본 격인 『詩人要考集』 역시 독서의 대상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자명해진다. 더구나 『詩人要考集』은 화가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회화적 요소가 강하고 출판된 장소가 부손이 위 그림을 그릴 때 활동하던 공간과 일치한다. 『聯珠詩格』을 다루는 『詩人要考集』의 방식이 그대로 도식화되어 부손의 사계도 그림과 시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권척이 찬한 본래 『詩人要考』는 시인의 초상을 그리고 그들의 시를 게재해 회화적 요소를 강조한 감상용 초록이었다. 그런데 와우산인이 간행할 때 일본어 번역을 붙이고 시법을 더해 『聯珠詩格』의 본래 용도에 맞는 학시서로 환원시켰다. 그런데 『詩人要考集』이 원래 가진 회화적 요소와 간행 때 첨가된 일본어 번역이 한시에 능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聯珠詩格』을 맞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따라서 巨帙의 『聯珠詩格』을 학시서가 아닌 감상용으로서 다룬 권척의 방식이 일본인이 『聯珠詩格』을 다루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조선후기,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12차례의 통신사행을 통해 조선과 일본은 직접적인 교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양국 지식인들은 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문학 및 문화 다방면으로 주고받은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 직접적인 문학 교류의 구체적인 모습을 『詩人要考集』의 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詩人要考集』은 권척이 『唐宋千家聯珠詩格』에서 50수의 시를 뽑고 시인의 초상을 그려서 엮고 “詩人要考”라는 제목을 붙여 때때로 음영하기 위해 만든 자신만을 위한 책이었다. 1636년 이문서관으로서 통신사행에 참

36) 王岩, *ibid.*, pp.21~65.

여하면서 문사를 담당했던 권척은 당시 맹아기에 있던 일본 한문학계를 대표하는 소수의 학자들을 만나 필담을 나누었다. 권척에 의해 시를 매개로 한 필담창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일본 문인들에게 시학교수 혹은 시학교관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와중에 지극히 사적인 시선집이었던 『詩人要考集』이 일본문인 와우산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개인소장에 그쳤던 『詩人要考集』은 1695년 교토에서 간행되었다. 본래 학시서로 편집되었던 『聯珠詩格』의 성격을 탈피해 회화적인 요소를 강조한 감상용의 책이었던 『詩人要考集』은 와우산인에 의해 시법과 일본어로 된 讀記가 덧붙으면서 다시 학시서로 환원되었다. 이 배경에는 한문학의 번성과 상업적인 출판업이 성행이 있었다. 조선학사의 권위를 더한 『詩人要考集』은 대중의 한시 창작에 대한 흥미에 부응하기 적당한 텍스트였던 것이다.

『聯珠詩格』 소재 한시의 일본어역이 실려 있는 『詩人要考集』은 한시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쉽게 『聯珠詩格』에 다가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聯珠詩格』을 학시서가 아니라 감상용으로 사용하는 『詩人要考集』의 태도가 은연중 일본 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聯珠詩格』을 사계절이라는 틀로 재구성하는 도식적 방식의 흔적을 요사 부손의 그림과 제화시에서 찾을 수 있다.

즉, 『詩人要考集』은 한 지식인의 개인적인 시적 활동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이국의 지식인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권척이 『聯珠詩格』을 토대로 『詩人要考集』을 만든 것은 개인적인 취미의 산물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통신사행을 통해 시학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권척이 일본에 부각되면서 감상용의 작은 책자가 간행되고 학시서로서 대중에게 제공되었다. 더 나아가 본래 『聯珠詩格』을 감상하는 태도에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 핵심어: 권척, 詩人要考集, 聯珠詩格, 蔡正孫, 与謝蕪村, 1636년 통신사, 한일교류, 일본 출판

<참고 문헌>

- 김상일, 「『精選唐宋千家聯珠詩格』과 조선조 간행의 의미」, 『東岳語文論集』 36, 2000, pp.395~414.
-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해행총재』 III~VI, (주)민문고, 1989.
- 신해진, 『권척과 한문소설』, 보고사, 2008.
-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대출판부, 1995.
- 장순순, 「朝鮮後期 通信使行의 製述官에 대한 一考察」, 『전북사학』 13, 1990, pp.33~75.
- 진재교,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한국한문학연구』 41, 2008, pp.73~114.
- 후지모토 유키오, 「일본의 현존 조선본에 대하여」, 『한국과학사학회지』 5 권 1호, 1983, pp.111~115.
- 京都史籍會 편, 『羅山先生詩集』, 平安考古學會, 1920
- 京都史籍會 편, 『林羅山文集』, 베리칸社, 1979
- 長友千代治, 『江戸時代の図書流通』, 思文閣出版, 2002.
- 宗政五十緒, 『近世京都出版文化の研究』, 同朋舍, 1982.
- 卞東波, 「『全宋詩』失收詩人及其佚詩叢考—以稀見漢籍『唐宋千家聯珠詩格』爲中心」, 『古籍整理研究學刊』 5, 2006, pp.30~34.
- 卞東波, 「稀見漢籍<<唐宋千家聯珠詩格>>의 文獻價值及其疏誤」,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Vol 23, No. 6, 2008, pp.111~119.
- 住友朋彦 「旧刊『聯珠詩格』版本考」, 『斯道文庫論集』 43집, 2009, pp.215~263.
- 小川武彦·石島勇 공저, 『石川丈山年譜』 本編·附編, 青裳堂書店, 1994.
- 尾形仿·佐々木丞平·岡田彰子 편, 『蕪村全集』 6권, 講談社, 1998.
- 王岩, 『与謝蕪村の日中比較文學的研究』, 和泉書院, 2006.
- 井上隆明 저, 『改訂增補近世書林板元總覽』, 青裳堂書店, 1998, 854면
- 李元植, 『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 2006.
- 張健, 「蔡正孫考論—以『唐宋千家聯珠詩格』爲中心」,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學版)』 Vol 41. No.2, 2004, pp.60~70.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the Transmission and Publication of Gwon Chik's *Siinyogo Collection* in Japan

Koo Jea-hyun

The book *Siinyogo Collection*(詩人要考集) that Gwon Chik (權試, 1599~1667) compiled is an anthology of poems that was published in Kyoto, Japan, in 1695. The book contains 50 poems that Gwon Chik selected from another book which was compiled by Cai Zheng-Sun titled *TangsongqianjiaLianzhushige*(唐宋千家聯珠詩格) in South Song Period, as well as his own portrait paintings of poets.

When Gwon Chik participated in the diplomatic mission to Japan as an administrative diplomat(Imunhakgwan) in 1636, he had carried his own personal compilation of *SiinyogoCollection*. As a Joseon Scholar, he not only actively began written exchanges with Japanese scholars but also caused Chinese poems to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process, *SiinyogoCollection* was delivered to a Japanese scholar.

Afterwards, as Japan's scholarship of Korean literature developed and its commercial publishing flourished, *SiinyogoCollection* became translated into Japanese and published with explanatory notes. *SiinyogoCollection*, which had reinterpreted *Lianzhushige*(聯珠詩格) as a selected compilation of poems with strong pictorial elements for the purpose of artistic appreciation, had been turned into a handbook for learning Chinese poetry. However, to the Japanese who were unfamiliar with Chinese poetry, it was likely to have been received as an easy and enjoyable book through which they could get a glimpse of the

massive compilation of scholarly poems in *Lianzhushige*(聯珠詩格).
Traces of *SiinyogoCollection's* influence can be found in the works of
YosaBuson(與謝蕪村).

- Key words: Gwon Chik, *SiinyogoCollection*, *Lianzhushige*, Cai Zheng-Sun, YosaBuson, Envoy of 1636,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publication in Japan

* 이 논문은 2009년 7월 14일 투고되었고, 8월 5일 심사 완료되어 8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